

아이들을 위한 내 사랑과 꿈의 책

최일옥

소설가

내게는 네 살 터울의 오라버니가 한 분 계시다. 그의 나이 이미 오십이 넘었으나, 그는 학생 때나 지금이나 잠시도 손에서 책을 떼어놓지 않는 광적인 독서가이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책만이 우리의 위로자라는 진리를 일찍 터득한 탓인지 그가 있는 곳에는 늘 책이 있었다. 80년대 초반, 열사의 땅 중동지방에 근무할 때에도 그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토지」를 싣고 다니며 책속에 고여있는 토속적인 고국의 정서로 목마름을 달랠 줄 알았다. 그는 지금 메카니즘의 천국 미국에서 살고 있으므로 시인 천상병의 죽음을 애도하여 그의 시집 한 권을 우송해 줄 것을 부탁해 오는 문학청년의 애상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책에 대해 내가 좀더 전문가라 생각하는 탓인지 책이 아닌 「나의 친구인 누이동생에게」라 쓰인 생일 축하카드를 보내주고 있으나, 그는 어린시절 생일 때마다 책을 선물했다. 그시절 나는 꽃핀과 예쁜 손수건이라도 받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으나, 그는 늘 동화책과 소년소녀 문고 한권을 손에 쥐어주었다. 내가 그에게서 받은 최초의 책은 일곱살인가, 여덟살 때 받은 방정환 선생님의 「진달래와 철쭉」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보관할 수 있었다면 가보 일호로 명명할 수 있으면, 청색 표지에 오누이로 상상되는 두 아이가 구름을 바라보는 삽화만이 세월만큼이나 먼저편에서 아른거릴 뿐이다.

이처럼 책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책의 가치를 알고 있던 그로하여 우리집 책선반에는 책이 그득했다. 내 취미가 독서가 되었고, 그나마 문단의 말석에라도 앉게 된 것은 이처럼 내 곁에 늘 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양서다 명작이다 하는 책제목을 들고 집에 돌아와 책장을 살펴보면 늘 그곳에는 그 책이 있었다. 읽고 싶은 책이, 또 읽어야 할 책이 언제나 곁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과 가슴에 충만히 고여오던 환희, 나는 그 기쁨을 위해 책을 읽었는지도 모른다.

읽어야 할 책이 나를 기다려준다는 설레임과 읽고 싶은 책이 늘 내 곁에 있다는 기쁨을 일찍부터 터득한 나는 한가지 소박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후에 내 아이들에게도 책이 그들을 기다려주는 기쁨을 선사하리라는 것을.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위해 책을 모으기 시작했다. 벽돌과 합판을 이용한 책꽂이에 세계문학전집과 한국문학전집을 비롯해 아이들이 읽어줄 책들을 하나하나 모아갔다. 어린시절 내 지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던 그 고마움을 기억하며 신혼의 어려운 살림에서도 반드시 돈을 떼어내 셰익스피어와 괴테 등 세계적 문호를 한 분 한 분 단간방으로 초대했다. 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서가에 꽂힌 이 어미의 정성에 감사하며 그들과 대화할 그날을 기대하며.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縱組로 꾸며진 내 꿈의 책을 그리고 내 사랑의 징표를 아이들이 반기지 않은 것이다. 나는 왜 그 사실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을까. 橫組만을 고집하는 아이들에게 내 노력과 꿈을 하소연하며 내 서가의 책들을 읽어달라고 애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이들이 찾아주지 않는 내 아이들의 책. 나는 이따금 곰팡내 물씬 풍기는 내 책을 펼쳐보며, 횡조로 된 책을 새로이 모아들여 아이들로 하여금 책의 세계로 빠져들도록 유도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던 내 꿈과 사랑의 책이 영원히 잠을 잔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책의 가치를 알고 책을 사랑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뉴스 2 '독서 새물결운동' 본격추진·외

표지인물 4 월급날 책선물로 탄광촌 문화운동 일군다
7월의 책의 인물 정선 우리기업 대표 박윤희씨초점 6 사회과학출판의 권토중래는 가능한가
다양한 시리즈물 개발로 새 활로 모색서평 8 조동걸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 서중석
이준식 「농촌사회변동과 농민운동」— 조성윤
9 여행시 「중국근세종교윤리와 상인정신」— 조강윤
김상일 「화이트헤드와 동양정신」— 이명수
10 김용식 「새벽의 약속」— 최종기
정운영 「노동가치이론」— 강남훈
11 김학수 「한국과학기술의 대중화정책연구」— 송상용
피터슨 「현대수학의 여행자」— 박세희
12 데이비드 편 「조각감상의 길잡이」— 박신의
이승훈 「한국현대시론사」— 강웅식
13 박상우 「나는 인간의 빙하기로 간다」— 김종욱

출판화제 14 출판사 주최 세미나 부쩍 활기 띤다

15 '짝패' 관계 이루는 책들 잇달아 출간

16 독자와 법의 거리 좁히는 생활법률해설서

17 상상력의 낭만주의자 가스통 바슐라르

시론 18 지능개발도서를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가

이색모임 19 순수 카툰 고집하는 작가들의 모임 '서울 카툰'

화제의 책 20 웅진미디어 펴냄 「비주얼 박물관」

21 동아출판사 펴냄 「세계의 가볼만한 101곳」

이 책 그 사람 22 「신동의보감」 펴낸 안덕균 교수
「숨어서 트는게 더 행복하다」 낸 한소진씨
23 「산책시편」 펴낸 이문재씨
「산벚나무 꽂피었는데」 낸 이철수씨

세계의 책 24 미사법부의 성 스캔들·외 — 배병삼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 이야기/정기구독 안내